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Parent-Children Relationship in Adolescent Period, Solidarity between Old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Old Parent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金孝貞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Hyo Jung, Kim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明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Prof. : Myung Cha, Kim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애정적·권위적·자율적이고, 갈등의 정도가 낮았을수록 높았다.
- 2)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애정적·자율적이었으며 갈등의 정도가 낮았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권위적 관계였을수록 과거 생활만족도는 높았고 미래 생활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현재 성인자녀와 접촉적·정서적·일치적·기능적·규범적 결속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구조적 결속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 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중 갈등적 관계였다.

I. 서 론

가족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초기에 형성된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기대들도 함께 유지해 나간다. 특히 한국가족은父子선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가족내의 핵심적 관계로 유지되어 왔으며 노인에게 있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상

실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는 매우 안정된 특성으로서, 다른 어떤 사회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으며(최혜경, 1985), 노년기 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노년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노년기에 이르는 것이고 청소년기에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오랜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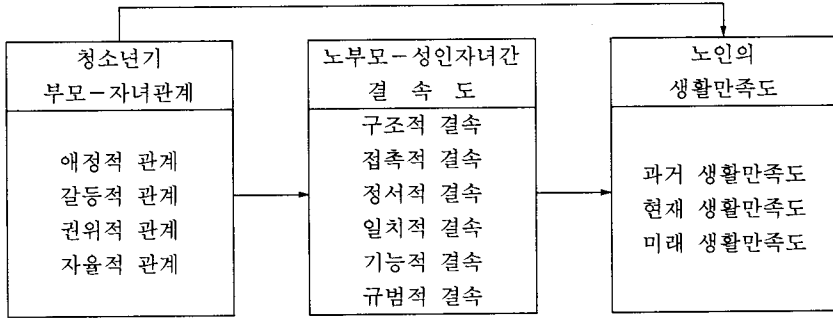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거치는 동안 누적·변화되면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노인의 삶의 질적인 문제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가정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이전의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결혼 이후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및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모색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¹⁾

1.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2.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3. 노인의 생활만족도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는 청소년기

1)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이에 대한 내용은 김효정,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pp.7-29.

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5〉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현재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가?

2.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선정 및 작성

1)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척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오성심·이종승(1982), 김진수(199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애정적 관계, 갈등적 관계, 권위적 관계, 자율적 관계의 하위영역으로 24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alpha=.63$) 조사와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8문항이 선정되어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2)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척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척도는 Bengtson과 Schrader(1982)의 가족결속도 개념들에 기초하여 조

병은(1988)이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척도는 구조적 결속,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A, B, 규범적 결속의 하위영역으로 예비 조사를 통한 신뢰도($\alpha=.84$) 조사에 의거하여 총 3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성재(198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차원까지 포함하는 생활의 情의인 면의 의미와 현재 및 미래차원에 걸친 생활의 動的인 면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신뢰도($\alpha=.90$) 조사와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으로 적어도 1명 이상의 기혼자녀를 가진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에서 11개 동과 하남시에서 5개 동을 선정하였다.

1994년 8월 6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남녀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척도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는 1994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총 440부를 배부하여 357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에서 내용기재가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총 300부(남자 148, 여자 152)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증법,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Step-Wise 방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노인이 49.3%, 여자 노인이 50.7%로 남녀가 비교적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남자노인이 81.1%, 여자노인이 90.1%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남자노인이 44.6%, 여자노인이 43.4%로 나타났으며,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영역	하위영역	해당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애정적 관계	1, 5, 9, 13, 17	5	0.81
	갈등적 관계	2, 6, 10, 14, 18	5	0.70
	권위적 관계	3, 7, 11, 15	4	0.72
	자율적 관계	4, 8, 12, 16	4	0.62
	전체	1-18	18	0.63
노부모- 성인자녀간 결속도	접촉적 결속	1-4	4	0.61
	정서적 결속	1-6	6	0.76
	일치적 결속	1-4	4	0.73
	기능적 결속A	1-5	5	0.76
	기능적 결속B	1-5	5	0.72
	규범적 결속	1-4	4	0.73
	전체		28	0.84
노인의 생활만족도	과거	1-5	5	0.71
	현재	6-11	6	0.85
	미래	12-16	5	0.77
	전체	1-16	16	0.90

표 2.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와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의 상관관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애정적 관계	감동적 관계	권위적 관계	자율적 관계	구조적 결속	집속적 결속	장서적 결속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규범적 결속	친체 생활 만족도	과거 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 만족도	미래 생활 만족도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1.00														
	-.46***														
	.26***	.10													
	.38***	-.10	1.3*												
	.18**	-.12*	.13*	.08											
	.29***	-.18**	.08	.09	.42***										
노부모- 성인자녀간 결속도	.67***	-.39***	.27***	.29***	.18**	.32***									
	.56***	-.33***	.28***	.24***	.16**	.21***	.62***								
	.55***	-.16**	.24***	.33***	.16**	.31***	.47***	.54***							
	.36***	-.20***	.14*	.22***	-.11	.12	.51***	.48***	.23***						
	.37***	-.09	.37***	.13*	.07	.14*	.41***	.39***	.32***	.41***					
친체 생활만족도	.44***	-.51***	-.01	.20***	.02	.23***	.45***	.32***	.27***	.31***	.22***				
과거 생활만족도	.19***	-.38***	.12*	.18**	-.03	.05	.22***	.13*	.11	.27***	.18**	.58***			
현재 생활만족도	.49***	-.05***	.05	.16**	.02	.15**	.46***	.40***	.24***	.32***	.27***	.87***	.33***		
미래 생활만족도	.19**	-.17**	-.21***	.09	.10	.29***	.23***	.07	.21***	.04	-.02	.67***	.11	.38***	1.00
평균	3.42	2.24	2.86	3.33	3.21	3.15	3.58	3.35	3.12	3.85	3.48	3.31	3.20	3.35	3.37
SD	.88	.77	.75	.61	.92	.71	.68	.81	.87	.72	.86	.48	.54	.74	.64

첫째 자녀 이외의 자녀와 동거하는 남자노인이 55.4%, 여자노인이 56.6%로 나타나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도 높지만 첫째 자녀 이외의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노부모-성인 자녀간 결속도

표 2는 연구문제 1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와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애정적이었을수록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는 모두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갈등적 관계였을수록 결속도는 모두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권위적 관계였을수록 구조적·정서적·일치적·기능적·규범적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적 관계였을수록 정서적·일치적·기능적·규범적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애정적이었다면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긍정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반대로 갈등적이었다면 전 영역에 걸쳐서 부정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재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공유한 상호작용 및 교류의 결과가 누적되고 변화되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서로 이해하고 애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가 되어도 성인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

1)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표 2와 표 3은 연구문제 2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1) 애정적 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애정적이었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3을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애정적 관계였을수록 전체 생활만족도($P<.001$), 과거 생활만족도($P<.05$), 현재 생활만족도($P<.001$), 미래 생활만족도($P<.01$)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애정적 관계가 노부

표 3.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 체			과 거			현 재			미 래		
		평균	SD	D	평균	SD	D	평균	SD	D	평균	SD	D
애정적 관 계	하	3.07	0.41	A	3.08	0.52	B	2.93	0.61	A	3.24	0.55	A
	중	3.31	0.48	B	3.21	0.55	AB	3.37	0.65	B	3.33	0.70	B
	상	3.54	0.44	C	3.30	0.55	A	3.72	0.75	C	3.56	0.61	B
	F값	26.40***			3.70*			31.99***			6.40**		
갈등적 관 계	하	3.59	0.41	A	3.39	0.52	A	3.73	0.66	A	3.60	0.76	A
	중	3.36	0.40	B	3.23	0.50	B	3.47	0.61	B	3.33	0.55	B
	상	2.99	0.47	C	2.98	0.57	C	2.81	0.68	C	3.22	0.60	B
	F값	43.88**			13.30***			46.53***			8.18***		
권위적 관 계	하	3.31	0.51		3.08	0.61	A	3.25	0.77		3.62	0.66	A
	중	3.26	0.45		3.19	0.48	AB	3.32	0.71		3.25	0.61	B
	상	3.39	0.49		3.32	0.56	A	3.49	0.74		3.34	0.61	B
	F값	2.03			4.12*			2.45			9.42***		
자율적 관 계	하	3.21	0.43	B	3.10	0.46	A	3.22	0.68	B	3.30	0.59	
	중	3.26	0.45	B	3.19	0.59	AB	3.25	0.73	B	3.34	0.63	
	상	3.48	0.52	A	3.32	0.56	B	3.60	0.74	A	3.49	0.69	
	F값	8.99***			3.74*			7.92***			2.40		

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청소년기 애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기의 애정적 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력이 있는 현재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계속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갈등적 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갈등의 정도가 낮았다고 인지한 집단일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 3을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갈등을 적게 느낀 집단일수록 전체 생활만족도($P<.01$), 과거 생활만족도($P<.001$), 현재 생활만족도($P<.001$), 미래 생활만족도($P<.001$)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위적 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권위적이었을수록 과거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인지($P<.05$)한 반면,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인지($P<.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로서 관계가 권위적이었을수록 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생각대로 잘 따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소한 문제라도 부모와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계의 질이 저하되어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4) 자율적 관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자율적이었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 3을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가 자율적이었을수록 전체 생활만족도($P<.001$), 과거 생활만족도($P<.05$), 현재 생활만족도($P<.001$)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녀가 어려서부터 생각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활에 충실했던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의존감이 적게 되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표 2와 표 4는 연구문제 3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1) 구조적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 과거 생활만족도, 현재 생활만족도, 미래 생활만족도는 성인자녀와의 구조적 결속도의 높고 낮음 즉, 지리적 근접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인자녀나 손자녀와 꼭 동거를 한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노후를 가족과 동거하느냐, 동거하지 않느냐 보다는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핵가족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한집에 동거하는 확대가족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핵가족이나 수정확대가족 등의 새로운 거주 양식을 모색함으로써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는데서 얻을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를 줄임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접촉적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성인자녀와의 접촉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성인자녀와의 접촉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P<.001$), 과거 생활만족도($P<.001$), 미래 생활만족도($P<.001$)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조병은(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전화로든 직접이든 자주 만날수록 대체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거만 하는 경우보다는 만남의 내용 중에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외식, 여행, 영화구경 등이 노인의 생활에 기쁨을 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정서적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성인자녀와의 정서적 결속도

표 4.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 체			과 거			현 재			미 래		
		평균	SD	D	평균	SD	D	평균	SD	D	평균	SD	D
구조적 결속	하	3.32	0.46		3.19	0.46		3.40	0.77		3.35	0.60	
	중	3.30	0.50		3.13	0.61		3.31	0.72		3.36	0.67	
	상	3.31	0.49		3.19	0.55		3.33	0.74		3.41	0.65	
	F값	0.07			0.09			0.42			0.61		
접촉적 결속	하	3.18	0.47	B	3.00	0.56	B	3.27	0.78		3.25	0.61	
	중	3.32	0.51	A	3.41	0.56	A	3.30	0.72		3.29	0.64	
	상	3.45	0.42	A	3.15	0.40	B	3.51	0.69		3.66	0.60	
	F값	7.37***			16.62***			2.91			11.86***		
정서적 결속	하	3.02	0.43	C	3.05	0.50	B	2.90	0.60	C	3.16	0.64	C
	중	3.35	0.44	B	3.28	0.55	A	3.38	0.66	B	3.39	0.60	B
	상	3.58	0.42	A	3.25	0.56	A	3.81	0.68	A	3.59	0.64	A
	F값	36.66***			5.21**			43.22***			10.42***		
일치적 결속	하	3.12	0.46	A	3.06	0.56	B	3.03	0.68	C	3.29	0.57	
	중	3.38	0.47	A	3.30	0.57	A	3.41	0.66	B	3.39	0.71	
	상	3.47	0.45	B	3.22	0.43	A	3.72	0.78	A	3.43	0.60	
	F값	14.75***			5.85**			21.55**			1.34		
기능적 결속A	하	3.12	0.46	B	3.11	0.53		3.14	0.69	B	3.11	0.63	B
	중	3.36	0.43	A	3.24	0.62		3.36	0.63	A	3.50	0.57	A
	상	3.40	0.52	A	3.22	0.46		3.51	0.86	A	3.44	0.67	A
	F값	9.04***			1.49			5.66***			9.99***		
기능적 결속B	하	3.15	0.46	C	3.03	0.56	B	3.10	0.65	C	3.35	0.64	
	중	3.29	0.49	B	3.17	0.50	B	3.30	0.74	B	3.37	0.70	
	상	3.50	0.43	A	3.42	0.54	A	3.67	0.71	A	3.39	0.53	
	F값	11.98***			11.50***			13.98***			0.11		
규범적 결속	하	3.26	0.41	B	3.09	0.51	B	3.19	0.58	B	3.50	0.68	A
	중	3.21	0.49	B	0.18	0.56	AB	3.19	0.71	B	3.26	0.59	B
	상	3.45	0.49	A	3.30	0.55	A	3.60	0.80	A	3.38	0.64	AB
	F값	7.53***			3.78*			11.63***			3.23*		

*P<.05 **P<.01 ***P<.001

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 4를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성인자녀와 정서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P<.001), 과거 생활만족도(P<.01), 현재 생활만족도(P<.001), 미래 생활만족도(P<.001)가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인다.

(4) 일치적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성인자녀와의 일치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표 4를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일치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P<.001), 과거 생활만족도(P<

.01), 현재 생활만족도(P<.05)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일치적 결속도가 높다는 것은 자녀와의 가치관이 유사하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비슷하고, 손자녀 양육방법에도 생각이 같으므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될 여지가 적게 되고, 갈등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 비슷하므로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성인자녀와의 일치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기능적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성인자녀와의 기능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먼저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적 결속A의 경우 결속도가 높을수록 즉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록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 ($P<.001$), 현재 생활만족도($P<.001$), 미래 생활만족도($P<.001$)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현재와 미래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도움에 대해 앞으로 성인자녀로부터 받을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일 수도 있고, 노인 스스로 자신이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하고 능력있는 부모라고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적 결속B의 경우 결속도가 높을수록 즉 성인자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노인일수록 전체 생활만족도 ($P<.001$), 과거 생활만족도($P<.001$), 현재 생활만족도($P<.001$)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이 미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는 자녀로부터 많은 보살핌을 받아왔지만 신체적 능력이 점차 저하되어가는 미래에도 자식들로부터의 이러한 보살핌을 계속 받을지도 불확실하고 자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능력없고 무가치한 부모로 생각이 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불확실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6) 규범적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성인자녀와의 규범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표 4를 통하여 하위영역별로 보면 규범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P<.001$), 과거 생활만족도($P<.05$), 현재 생활만족도($P<.05$)는 높게 나타났으나 미래 생활만족도는 규범적 결속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가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규범적 결속이 낮은 집단의 노인들은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강요·기대·의존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에 따라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

표 5는 연구문제 3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중 갈등적 관계(-.35)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이었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생활주기상 초기 관계가 후기 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표 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 생활만족도		
		B	β	Partial R ²
갈등적관계		-0.222	-0.353***	0.256
정서적결속		0.149	0.211***	0.074
성별		0.170	0.176***	0.027
구조적결속		-0.078	-0.149*	0.010
애정적관계		0.073	0.134*	0.010
접촉적결속		0.072	0.107*	0.009
회귀상수				2.961
R ²				0.385

* $P<.05$ ** $P<.01$ *** $P<.001$

있으므로 초기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갈등적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좋았던 관계에 대한 기억보다는 좋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아 결혼 이후 성인자녀-노부모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초기 부모의 거부행위나 편애가 후기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Whitbeck(1991, 1994)과 Bedford(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계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후기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여 갈등적 관계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해 보는 등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정서적 결속(.211), 노인의 성별(.176), 구조적 결속(-.149), 애정적 관계(.134), 접촉적 결속(.107)의 순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성인자녀와의 구조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 즉 한 집에 살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생각하게 되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고 한 집에 살면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추측된다.

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만을 가지고 인과모형을 재구성하여 그 결과를 파악하였으며 다음의 그림 2와 표 6은 수정된 경로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와 표 6을 통하여 독립변인 중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그 영향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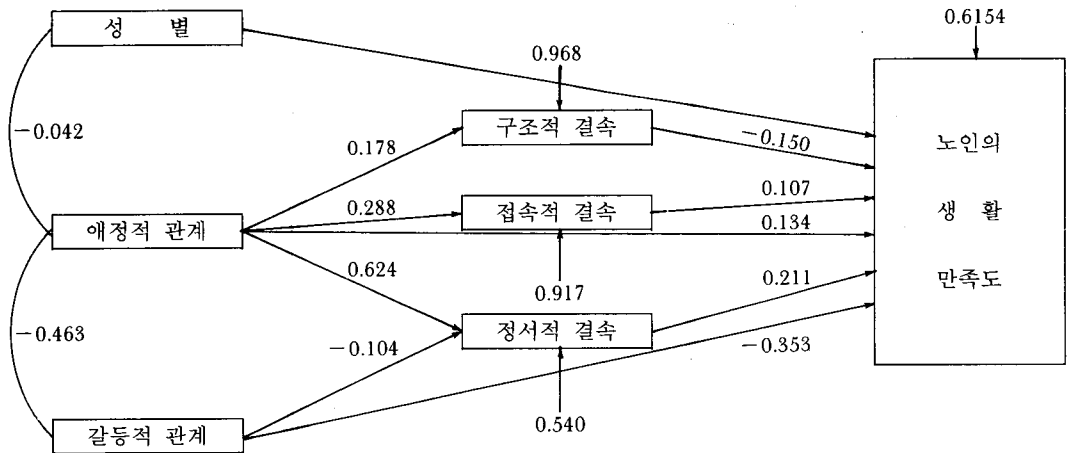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표 6.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비인과적 효과

변 인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 별	0.179	0.176	-	0.176	0.003
애 정 적 관 계	0.436	0.134	0.136	0.270	0.166
갈 등 적 관 계	-0.506	-0.353	-0.022	-0.375	-0.131
구 조 적 결 속	0.019	-0.150	-	-0.150	0.168
접 촉 적 결 속	0.226	0.107	-	0.107	0.120
정 서 적 결 속	0.448	0.211	-	0.211	0.237

순으로 살펴보면, 갈등적 관계(-0.353), 정서적 결속(0.211), 노인의 성별(0.176), 구조적 결속(-0.149), 애정적 관계(0.134), 접촉적 결속(0.107)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들은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변수를 매개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효과를 함께 나타낸다.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중 애정적 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효과(0.134)보다는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중 구조적 결속(0.178), 접촉적 결속(0.288), 정서적 결속(0.624)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 애정적 부모-자녀관계가 현재 노부모와 성인자녀간 결속도를 높게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중 갈등적 관계는 현재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중 정서적 결속(-0.104)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0.022). 그러나 간접효과에 비해 직접효과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갈등적 상황들이 지금까지 노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제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인과적 효과로서 변수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가장 기여도가 큰 변수는 역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중 갈등적 관계(-0.375)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의 성별이나 현재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보다 청소년기 때의 갈등적 부모-자녀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애정적·권위적·자율적 관계였을수록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적 관계였을수록 결속도가 낮게 나

타났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애정적·자율적이고 갈등의 정도가 낮았다고 인지한 집단일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았고, 권위적 관계였을수록 과거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나 미래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접촉적 결속, 정서적 결속,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 규범적 결속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적 결속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꼭 동거를 하는 경우 보다는 만남의 내용 중에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외식, 여행, 영화구경 등이 노인의 생활에 기쁨을 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와 동거하느냐, 동거하지 않느냐 보다는 서로간에 얼마나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정서적 결속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핵가족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구태여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한 집에 동거하는 확대가족만을 바람직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핵가족이나 수정확대가족 등의 새로운 거주양식을 모색함으로써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좋게 유지하면서 동거하는데서 올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를 줄임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각 변인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인과모형에서 직접효과만 갖는 변수는 노인의 성별(0.18), 애정적 관계(0.13), 갈등적 관계(-0.35), 구조적 결속(-0.15), 접촉적 결속(0.11), 정서적 결속(0.21)이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함께 갖는 변수는 애정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로 이들은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를 매개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갈등적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갈등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되어 시간이 흐른 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갈등적 관계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해보는 등의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부모-성인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을뿐 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와 연결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점차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는 현실에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결혼 이후 성인자녀-노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 노인과 자녀간에 상호 각자의 생활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세대간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형식적이고 이상화된 효이데올로기에만 얽매어서 실제적으로는 세대간의 관계가 소원한 데서 오는 노인 소외의 문제나 젊은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부터 탈피하고 보다 열린 관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령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모색될 때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가 넓혀지고 이에 따라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은 매우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 2)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논문.
- 3)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장남 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대박사논문.
- 4)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 5) 신호식(1993).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부담 간의 인과모형탐색. 한양대 박사논문.
- 6) 유영주(1982). 신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7) 윤진(1984). 노부모와 중년자녀와의 관계-한국가족관계에서의 갈등. 한국심리학회.
- 8)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9)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연대 박사논문.
- 10) 정경아(1993). 사춘기 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 11) 최은영(1980). 노년기 생활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12)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13)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대 석사논문.
- 14) Atkinson, M.P.(1986).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1, pp.408-416.
- 15) Bedford, H. Victoria(1992). Memories of Parental Favoritism and the Quality of Parent-Child Ties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4). S149-155.
- 16) Bengtson, V., Rosenthal, C., and Burton, L.(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Third Edition. Academic Press, Inc.
- 17) Bengtson V. and Roberts R.(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pp.856-870.
- 18) Cho, B.E.(1988).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 aged parents. Ph.D.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19) Whitbeck Les B, Ronald L. Simons, and Rand D. Conger(1991). The Effects of Early Family Relationships on Contemporary Relationships and Assistance Pattern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6(6).